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9년도 포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 사명자대회

# 내일부터 특별새벽기도회

### 27일(토)까지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99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되어 27일(토)까지 두 주간 계속된다. 새벽기도회 시간은 평소와 달리 새벽 5시에 시작하여 6시에 마치게 된다.

이번 특별기도회에서는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받고 태신자를 위한 기도과 사명자대회 7대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의 강사는 이종윤 목사이다.

오늘 I·II·III부 예배 후에는 전도회별 노방전도를 실시하며 수요일에는 다락방 일꾼들을 위한 전도교육이 실시된다.

이밖에도 연속기도회, 금요 심야기도회, 등반전도 등 사명자대회의 행진은 이번 주간에도 계속된다. 운동본부에서는 태신자 카드를 계속 접수하고 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잃은 양 초청에 앞서 각 부서와 교구에서 잃은 양 찾기 운동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 이번주 사명자대회 주요행사

- ▶특별새벽기도회: 새벽5시부터, 1층 예배실
- ▶50일 연속기도회: 2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19일)
  - 주력교구 및 부서: 9·10교구, 베드로선교회, 유년부·초등부, 베들레헴찬양대
- ▶전도교육
  - 11월 17일(수) I·II부 예배 후 다락방별
  - 참가 범위: 지역장, 다락방장, 권찰
- ▶노방전도
  - 전도회별 노방전도: 14일(주일)예배 후 담당부서: 바울선교회, 에스더전도회
  - 병원전도(대학부, 청년부): 주간에도 계속
  - 등산전도: 20일(토) 청계산 오후 2시
- ▶태신자전도: 문서전도, 심방전도, 일대일 책임전도 결실, 등록한 성도와외 교제
- ▶다락방 배기운동: 가족·이웃·친지 전도
- ▶가족초청전도: 한가족 한교회 운동
- ▶잃은 양 찾기 운동:
  - 잃은 양 초청: 14일(주일)
  - 잃은 양 실태 파악·보고 및 다락방별 합심기도, 친분 가진 성도로 구성하여 심방

## 성경암송대회 ... 말씀 사랑 열기 고조

### 지난 주 예선 거쳐 12일(금) 본·결선, 오늘 찬양예배시 시상식

교회설립 8주년 기념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12일(금) 교회에서 열려 김대웅 집사(장년부) 등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늘 찬양예배 시 갖게 된다.

이날 열린 성경암송대회는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결선에 오른 이들 중 대상은 김대웅 집사(장년부)가 받게 됐으며, 최우수상에 김보연(초등부), 우수상에는 김소연(유년부), 그리고 장려상은 이민웅(중등부) 이 각각 수상하게 됐다.

시편 119편을 외우는 이번 암송대회의 예선은 5일(금)과 7일(주일) 교회학교별로 각각 행해졌다.

예선에서 선발된 이들은 12일(금) 본선을 치른 뒤 최종 결선을 통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사는 정확도, 자세, 청중의 반응 등을 감안해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을 정확히 암송하는 것뿐 아니라 회중에게 시선을 잘 주는지, 단순히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표하는 모습을 잘 갖추었는지 등을 점수에 반영했다.

이번 암송대회는 교회설립 기념일에 즈음하여 우리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이번 암송대회에서는 유아부 김한나, 윤진원, 이현준, 이선아, 김성경, 정주희, 김성환, 유예원, 황규

진 등 9명의 어린이와 사랑부 김용훈 학생이 참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이번 암송대회에 출전하여 성경을 암송한 성도들이 은 교우 앞에서 암송실력을 선보이게 된다.

## 목회자신학세미나 · 성경대학 종강

### 8일(월)과 오늘 찬양예배시 각각 수료식

제 16학기 목회자세미나가 8일(월) 서울 강남YMCA대강당에서 종강했다. 이번 학기는 지난 9월 6일(월)에 개강하여 10주 동안 매주 월요일에 진행됐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제 1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수료식에서 이번 학기를 모두 수강한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지난 네 학기를 수료한 목회자 27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번 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새 시대의 섬김 목회 모델”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제 1교시(오후 2시 ~ 3시 30분)에는 이종윤 목사가 사도행전을 연구했다. 그리고 제 2교시(3시 50분 ~ 5시 20분)에는 ‘21세기와 디아코니아 목회 모델’, ‘노인 문제의 교회 역할’, ‘교회 유아원과 지역 사회 봉사’, ‘병원

전도와 호스피스 사역’, ‘교도소 선교와 수감자 가족 선교 전략’, ‘실직자와 노숙자를 향한 섬김 사역’,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 성쇠의 상관관계’, ‘복지관 운영과 교회’, ‘장애인 선교의 현주소와 대책’, ‘나그네(난민, 외국인)에 대한 봉사 목회’ 등 분야별 섬김 사역을 검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특강이 있었다.

한편 지난 주간에는 서울성경대학 갈라디아서반, 사무엘상반, 스바냐반, 느헤미야반(아담반)과 음악교실 및 리더양성반(L.T.C.)이 모두 종강했다. 서울성경대학의 수료식은 오늘 찬양예배시에 갖게 된다. (관련기사 3면)

이사야 강해

패역한 자식들

이사야 30장 1-7절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유다 민족은 앗수르로부터 위협을 당하자 애굽을 찾아가 그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유다 민족은 패역의 자식이며 불순종의 자식이고 타락하고 반역한 자식입니다. 이렇게 패역한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입니다.

1. 유다의 패역

(1)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은 죄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애굽으로 찾아가 맹약을 맺었습니다(1절). 이 모든 것들이 죄에 죄를 더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나의 입'(2절)이란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논해야 할 일을 피해서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한 일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호 8:4).

또한 묻는 것과 허락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 일은 주님의 아실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자기의 방법대로 행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낳은 아들이 아니었고 결국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 유대 민족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죄

애굽에 내려갔다는 말(2절)은 구약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창 12:10, 42:3, 43:15, 민 20:15, 신 10:22). "내려간다"는 말은 지리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으나 타락하는 걸음을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유기한 신앙을 말합니다. 유다 민족은 입술로는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애굽을 의지하므로 하나님을 속인 불신앙의 죄를 지

었습니다. 저들은 또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더 신뢰하여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파탄에 이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곧 패

앞에서 오는 것은 낙심뿐입니다.

(3) 도움을 받으려다 굴욕을 당한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3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 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않은 라함이라 일컬었느니라"(사 30:1-7)



이종운 목사

역한 사람입니다.

2. 유다 민족의 죄가 가져온 재앙

(1) 애굽은 유다의 수치가 된다

수치와 수욕이라는 말은 3절과 5절 사이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유다는 애굽의 중요 도움지인 소안과 하네스에 고관들을 파송하여 6절에 의하던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비굴한 태도로 원조를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하고 애굽이 약속을 시행치 않아 유다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위험한 먼길을 찾아가 많은 비용을 사용하며 원조를 요청했으나 그 모든 일은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결국 유다 민족은 많은 비용을 내고 수치를 산 셈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같은 모험과 너물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 민족은 진실로도 올 분을 찾지 않고 인간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여 마침내 수치를 당했습니다.

(2) 교만한 애굽 앞에서 얻은 것은 낙심뿐이다

7절에 나오는 라함은 애굽의 별명입니다(시 87:4). 히브리어로 라함은 호인장담하며 교만한 애굽을 말합니다. 교만한 애굽은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실행하지 않으므로 가만히 앉은 라함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거짓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거짓

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5절). 도와줄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신실하신 분이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도 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애굽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대로 선택을 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린 신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와 의논해야 합니다. 바로가 무섭다고 그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의 힘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종에게 숨기고 몰래 애굽으로 내려가므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임 회장의 글**● 지난 주일 청년부와 대학부에서는 각각 정기 총회를 가졌다. 청년부에서는 손재영 형제가, 대학부에서는 회장 황주원 형제가 각각 회장으로 선출됐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두 부서 신임회장의 소감과 각오를 들어본다.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으로”

손재영(청년부 신임회장)

99년 한 해 저희 청년부에는 주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탈북자 난민인정 청원운동, 흥해 작전 등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대학에 신설된 L.T.C 과정으로 젊은 일꾼 양육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젊은 일꾼들의 활기찬 모습이 어느 해보다도 더욱 신선하게 느껴진 한 해였습니다.

강남땅의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몇 가지 다짐을 적어봅니다.

첫째,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열정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의 청년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우리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섬김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둘째,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때부터 부르셔서 섬기게 하신 주님의 뜻을 좇아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교회의 권위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셋째, 성실하게 배우고,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청년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부,고등부, 중등부 등 각 교회학교의 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회인으로, 새성전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일꾼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미래의 청년부가 바로 서울 교회의 모습이라는 확신과 책임감으로 섬기겠습니다  
부족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청년들

이 모였습니다. 교만하고 어긋나기 쉬운 청년의 열정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많은 가르침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내 아들 내 딸 이려니하는 심정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있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하루 하루”

황주원(대학부 신임회장)

20세기의 끝자락, 1999년 늦가을입니다. 뒤돌아 주위를 살피건대 세상은 선한 데서 많이 멀어지고 있음이 보입니다. 생각해내기도 어려운 놀라운 죄악들이 날마다 우리를 경악케 합니다. 악에 대한 무신경은 전염병처럼 퍼져 있습니다. 사방이 캄캄한 어두움으로 싸여있습니다. 새 천년에 우리 서울 교회에 맡기신 주의 사명이 얼마만한 것인지 그 무게를 알 것도 같습니다.

우리 대학부가 맡게될 주의 명령이 그 무엇이 되든 중의를 모아 충성하고자 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자신을 알기에 이 자리에서 서게 하심이 놀랍고, 얼마만큼 두렵기도 하지만 믿음이 크면 클수록 성령님의 역사도 더 많이 채워질 것이며 또한 넉넉한 힘으로 일하게 하실것임을 믿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그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면 ‘게으르고 악한 중’이 될 것이기에 오늘을 충성되이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맘껏 활용하여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바야흐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해야할 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길 소망하며 줄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키시고 인도해주실 우리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 제 6학기 성경대학 수료자 ◆

● 스바나반

김정순 김계순 김관홍 김세재 김정두  
박지원 선연자 손대길 유후자 이민화  
이자혁 이채봉 임송자 전배호 정병무  
정해진 조희숙 최용걸 최일춘 최재춘  
하영수 허상한 허인숙 황노전 황인숙  
(25명)

● 음악교실

김병호 김재술 박성현 손대길 유을상  
이영희 전배호 최미지 최재춘 한선규  
(10명)

● 리더양성반

강희자 권오현 김성실 김영현 김은희  
김인수 김자영 김혜언 박운정 박정섭  
배성수 성기원 소은희 손대길 손지희  
송인권 신혜연 안재희 오선혜 왕영래  
이보람 이복규 이승민 이현옥 임송자  
정병무 정정숙 주경자 최아영 추하니  
한명순 홍지민 (32명)

● 갈라디아서반

김금준 김복녀 김복순 김은희 송정희  
송영강 신순우 심재을 원영애 유복달  
윤문자 이남북 이승희 이은희 이자혁  
이현주 임송자 장효옥 전기섭 정병무  
정혜순 주경자 최근자 최아영 최용걸  
최일춘 최죽희 하영수 허인숙 (29명)

● 사무엘상반

김범태 김복녀 김선미 김세재 김영주  
박병주 방계운 송두심 송향관 오은이  
오충례 윤찬오 이경구 이복규 이옥현  
이혜순 장 덕 전인화 정병무 정봉금  
정윤순 조정옥 조철기 주정희 최난수  
최무순 최영준 최용걸 최재춘 하영수  
한명준 (31명)

● 노헤미아반

강애자 강풍자 고은정 김계순 김복녀  
김선미 김신정 김영란 김영숙 김영식  
김영심 김영주 김영희 김은애 김인숙  
김인순 김현관 김현주 나미용 박정희  
박두영 박연순 박정순 박철훈 방계운  
송두심 신용식 심재을 여현진 오광환  
오정수 왕경래 원복순 유 신 유을상  
윤문자 윤찬오 이경구 이남북 이남성  
이민화 이보우 이복규 이승민 이승우  
이영기 이영숙 이영옥 이영희 이옥녀  
이완형 이은희 이정숙 이해순 임상현  
임송자 이민숙 임훈규 장애희 전기섭  
전인화 정병무 조상희 조정식 조정옥  
조철기 최금자 최난수 최부순 최양해  
최영란 최영순 최용걸 최일춘 최재춘  
최정자 하영수 홍성주 홍순복 홍계식  
홍정선 (81명)



사명자의 기도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주님을 찬양해요 결국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부족한 것을 들어 주님께선 복음을 일으켜주셨어요. 준비도 부족했어요. 기도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네 명의 새 아이, 또 성진이와 강산이까지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성진이와 강산이가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모습은 우리 반 친구들에게 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이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설명하기에 족했어요.

우리들의 공부와 끝날 것 같아 나며지 아이들은 “강산과 성민이가 싸우고 미워하는 것을 그치고 서로 악수하게 해 주세요.” 라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주님도 아시죠? 그들은 서로 악수를 했답니다.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시고요. 주께서 승리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있을 저에게, 낙심의 구렁텅이에 던져져 있을 저에게 사명자 대회를 통하여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해 주세요(고전 15:58).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시31:5). - 99사명자대회 중보기도실에서 발견된 편지 -

●선교회·전도회 개편에 붙어●

“첫사랑의 감격으로”

오유식(집사, 남선교회 협의회장)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 엿그제 같은데 벌써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아울러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남선교회 간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가 적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몸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섬기며 좀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조직은 바뀌어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첫사랑을 회복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마음밭이 바뀌기를”

허숙(집사, 여전도회 간사)

필라니엄의 바람은 전도회에도 불어오는가 봅니다. 기구의 편성과 조직이 완전히 바뀐 전도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활성화될지 적지 않게 기대가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기구나 조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아닌가 합니다.

새 시대가 오면 뭐하고 새 천년이 시작될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지 2천년이 지나고 3천년을 향해 가는 오늘 이 시간의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오신 그때나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처음 영접했던 그 시간처럼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있으니까요.

모두들 제자리에만 있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제일 감사했던 분은 전도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신 J집사님이셨습니다. 특별히 말으신 일도 없었지만 그분은 따로 전화를 드리지 않아도 월례회가 열리는 날이 되면 조용히 오셔서 자기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어

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번덕이 죽 끓듯 하는 모습으로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신들 얼마나 복잡하실까요.

전도회의 일은 할 일 없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전도회에 소속 되는 것도 성도의 의무 사항이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서울교회 성도 모두가 어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내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전도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부대에 순종의 포도주로”

정춘모(집사, 남선교회 간사)

2장 남은 달력이 벌써 한 해의 끄트머리에 와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건데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요한 6지회장과 간사를 맡기실 때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성경에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는지를 조금 알 듯합니다.

요한선교회의 연령층은 세상적으로 기반을 닦아야 하는 시기이면서 자칫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때이며 그렇기에 성도간의 교제와 화합은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열심을 다해 정진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내년부터는 조직이 바뀐다고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던가요. 새롭게 조직되는 선교회는 올해보다 더욱 살아 움직이는 선교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선교회 모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는 회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이상호(집사, 남선교회 협의회장)

처음 남선교회 협의회장으로 임명받았을 때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교회

에 많은 봉사 기관이 있지만 교회 행사 때마다 남선교회가 어떻게 하면 신속히 조직을 움직여서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선교회가 별도의 조직과 책임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좀더 활발하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이 개편이 된다면 우리 교회와 선교회의 발전을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올 한 해 아쉬움이 많았지만 농어촌전도대와 함께 지원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해가 저물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참회를 하고 사랑의 주님께 용서를 빌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제 새로운 해에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렵니다.

■ 동정 ■

\* 이종운 목사는 16일(화) 총회 세계선교위 동역자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18일(목)에는 한국로잔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하고 19일(금)엔 한국기독교 115주년 및 한기총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주제강연을 한다.

\* 이번 주 식사는 민순구 장로·이영희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제 1권사회는 15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99 사망자대회 태신자 명단 (다음 호에 계속)

전도자	태신자
김선희	한상학 한산규 한상업
홍중표	김인숙 박춘원 홍정기 장영희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망자대회와 군선교를 위한 비전2020운동을 위해
2. 목회자세미나와 성경대학을 통해 배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3. 대학입시를 치르는 성도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의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